

데이콤

DACOM-EDI 펌뱅킹 이용업체 급속히 늘어

- 11월 현재 21개 은행, 3천1백개 기업 이용해

은행창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없이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예금 및 수출입거래 등 1백여종에 달하는 각종 금융정보 조회는 물론 거래은행간 송금이 가능한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최근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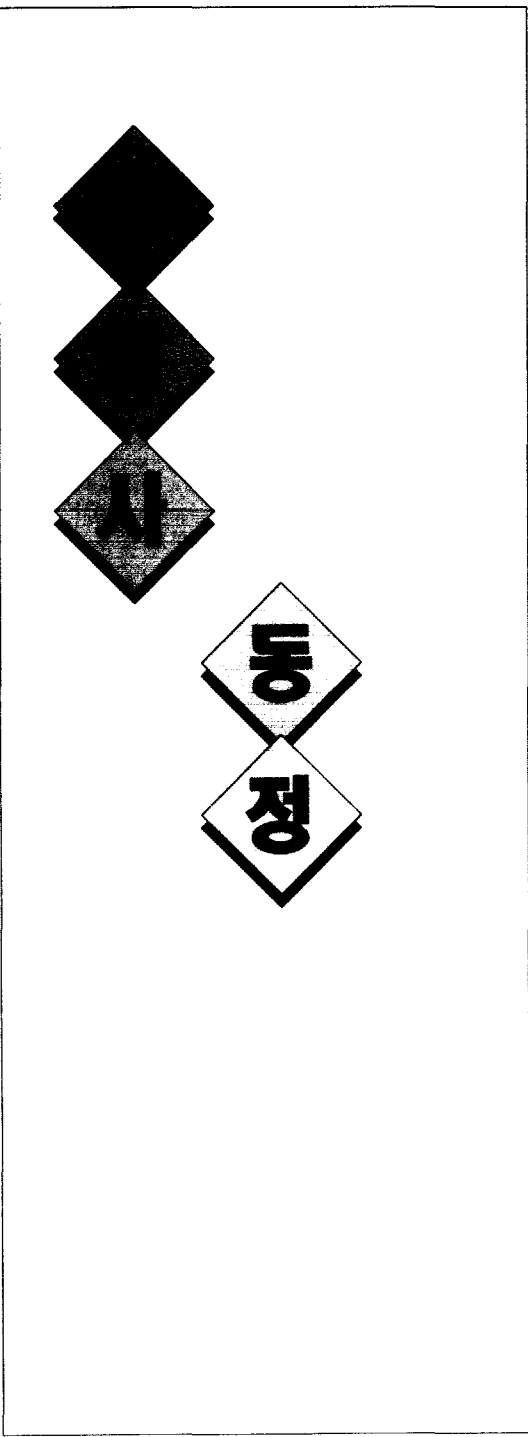
(주)데이콤(社長 : 孫益壽)에 따르면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지난 92년 조흥은행, 한일은행 등 13개에서 올 11월 현재 모두 21개로 늘었으며 또 이들 금융기관의 펌뱅킹서비스에 가입,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업체도 92년말 5백 26개사에서 3천1백사로 크게 증가, 불과 2년새 무려 6배 가까이 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들의 펌뱅킹서비스 월 사용시간도 작년 12월 8천3백30시간(1천6백개 업체)에서 올 10월에는 1만8천3백시간으로 120%나 증가 했다.

이런 추세는 기존 시중은행외에 현재 펌뱅킹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인 경기, 전북, 충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 오는 95년에는 약 2만여개 업체가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펌뱅킹서비스가 최근들어 국내업체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는 신용장 관련업무, 입금 및 대리점 잔액조회, 거래실적 조회 등 각종 금융관련 정보조회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등 은행업무를 사무실에서 직접,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사무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제휴-통신서비스 저변확대 위해



데이콤(社長 : 孫益壽)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저변확대를 위해 12월1일부터 삼성전자의 신제품 "삼성 그린 컴퓨터IV"의 구입자 전원에게 천리안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천리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준다.삼성 그린컴퓨터는 전기가 나가도 자료가 자동 보관되는 하이버네이션기능과 고속팩스모뎀,그리고 데이콤의 통신용 소프트웨어 "DL3.0"을 내장하고 있다.

에 이 텔

14,400BPS 고속서비스 개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편 작업 중의 하나였던 14,400BPS 고속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번 14,400BPS고속노드 150회선 증설(서울 지역)로 파일전송속도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많은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게될 것이다. 잦은 접속불량, 답답한 통화중 신호, 느린 파일전송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막힘없는 쾌속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것이다. 새롭게 개설되는 고속노드를 통해 2,400BPS나 9,600BPS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고속서비스 이용도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센타메일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14,400BPS 접속전화번호 : (02) 563 - 4111)

나 우 콤

나우누리의 계간 정보지 발간!

나우누리가족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전자소식지 <나우랑>의 창간호가 11월 모습을 보인데 이어서 나우누리의 각종 자료실 등록 자료와 정보를 담은 계간 정보지가 곧 첫선을 보인다. 12월경으로 발행이 예정된 나우누리 계간 정보지는 인쇄된 책자 형태로 나우누리의 95년도 장기계획, 자료실 등록자료 안내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우수한 공개자료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라이브러리, 그리고 나우누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가이드와 전문가와의 분기별 일정 안내 등이 수록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나우로>의 설치에서 활용까지의 완벽 가이드가 마련되어있다. 전자소식지 <나우랑>이 나우누리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매체라면, 계간 정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이 나우누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담은 정보잡지가 될 것이다. 계간정보지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계간지이며, 나우누리 이용자들에게 직접 우송해줄 예정이다.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소

정보로 수납대행시스템 개발

증권, 날씨, 시주, 야구, 게임 등의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700"번 서비스를 보다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양승택) 지능망연구부가 최근 개발한 정보이용요금 수납대행시스템

은 NICS(Network Information Control System)라는 지능망시스템을 이용, 여러개의 지역번호를 가진 700번서비스 사업자(IP)에게 하나의 전국 대표번호를 부여,이용자가 전화를 걸 때 가장 가까운 거리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연결해줘 이용자의 전화요금을 절감해준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야구정보 700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리 부여된 전국대표번호(700-xxxx)로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대구로 자동 연결해준다는것이 시스템은 또 정보이용요금을 별도 계산해 전화요금에 부과,수납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편리할 뿐 아니라 이용자는 700번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정보제공자가 관측을 위해 임의로 요금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지능망연구부 김성규 부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화요금을 줄일 수 있고 한국통신과 같은 통신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통화를 줄여줘 보다 효율적인 통신망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700번서비스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이번에 개발한 이 시스템의 현장운용시험을 거쳐 오는 95년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2.3 V 전력 MESFET신제품 세계최초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소장 양승택) 화합물반도체연구부는 2.3V의 낮은전압에서 68%의 효율을 갖는 전력 금속전계효과트랜지스터(MESFET)시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TRI 화합물반도체연구부 박형무 책임연구원팀은 4.7V와 3.3V제품에 이어 전력MESFET의

동작전압을 2.3V로 끌어내리면서 전력변환효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 MESFET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력 MESFET는 휴대전화기 출력단 전력모듈의 핵심소자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의 동작전압이 4.7V이며 일본의 마쓰시타전기를 비롯한 3개업체 정도가 최근 3.3V제품을 개발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합물반도체연구부는 2.3V에서 동작하는 전력 MESFET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국산 휴대전화기의 초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ETRI 화합물반도체연구부는 동작전압 4.7V의 전력 MESFET 제조기술을 삼성전자에 이전한 데 이어 3.3V제품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산호세에 소재한 SMS(삼성 마이크로웨이브 세미컨덕터)사가 최근 4.7V 전력MESFET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쏘만간 국산갈륨비소전력소자가 국산휴대전화기에 처음 채용될 전망이다

통신처리연구부, 95년 3월 통신처리시스템 상용화

사전등록 및 가입절차없이도 PC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정보유통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통신처리연구부는 개방형 정보유통을 가능케 하는 통신처리시스템(ICPS) 개발을 완료,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돌입하기 위한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처리시스템은 전화가입자망(PSTN)의 이

용자 터미널과 데이터통신망(PSDN)의 정보서비스센터를 연결,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문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교환기와 정보서비스센터를 PAD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서비스방식을 대체할 전망이다.

PAD방식이 통신처리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로 바뀌면 PC통신을 위한 ID등록이 사라지게 돼 누구나 전화회선을 통해 각종 VA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01410서비스가 1만4천4백bps로 고속화될 뿐만 아니라 안내서비스의 이용으로 사용법도 훨씬 편리해진다.

또 정보제공업자(IP)로서는 ID의 폐지로 방대한 가입자 등록Database를 관리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Database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TRI에 따르면 ICPS망 구축을 위해 95년에 정보서비스엑세스장치(ISAP) 1백60대와 지역관리장치(M-OAM)인 타이컴 16대가 주요전화국에 설치되며, 2000년까지 총 5백47대의 ISAP와 50대의 M-OAM이 하이넷-P 네트워크에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CPS는 동시에 1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ISAP와 이를 32대씩 묶어 지역별로 관리하는 M-OAM으로 구성된다.

금성정보통신

자체통신망 GINS로 고장수리VAN서비스실시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기존 사설교환기 고장수리 VAN(부가통신망)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자체 통신망인 GINS를 통해 주유기POS시스

템,송강기 등각종 장비의 고장수리 정보 및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각사 제품에 대한 장애안내 정보를 Database로 구축, 제공하는데 해당 제품의 특징과 고장수리 요령은 물론 부대장비,취급회사,취업/구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집중적인 AS효과와 사용시간 AS사례의 공유를 위해 해당기기 보유업체만 시스템을 공유토록 하는 폐쇄이용자그룹(CUG)형태로 서비스된다. 이에 따라 각종장비의 고장수리정보는 물론 설치, 정기점검, 응급조치 요령등 각종 정보를 현장에서 PC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어 유지보수에 따른 간접비 절감은 물론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다.

VOD 핵심전송장비 "ADSL" 국내 첫 개발

주분형 비디오(VOD)서비스의 핵심전송장비인 고속 디지털 가입자장치(ADSL)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일반 전화회선인 2선식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압축된 디지털 영상·음성 정보를 중계없이 원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는 고속디지털 가입자 장치(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의 개발을완료,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VOD서비스의 핵심기기인 ADSL장비가 국산화됨에 따라 원거리 교육, 원격통신서비스, 전화선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DT)등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정보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해야 하는 멀티미디어통신 서비스 도입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TI/EI급 MPEG-1규격으로 개발된 이 ADSL

장치는 전화국에서 가입자 댁내까지 별도의 중계기나 부가장치 없이 0.5mm전화케이블을 통해 최대 4.2km거리까지 에러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전화국에서 가입자로의 단방향 영상 채널과 *제어신호를 위한 양방향 채널 *전화교환을 위한 POTS채널을 각각 다른 주파수폭으로 복조시키는 방식을 채택, 하나의 전화회선으로 VOD서비스와 전화통화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데이터통신시 발생하는 신호의 감쇄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동동화기능과 에러정정 기능을 채택했으며 최첨단 신호전송방식인 CAP기술을 채용, 잡음과 신호간섭 현상을 크게 개선했다. 향후 가입자선로의 광케이블화가 실현되기 이전단계의 고속 가입자 전송수단으로 사용될 이 장치는 기존 전화가입자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고 운용 및유지보수가 일반 전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용량 정보 전송에 따른 회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삼보정보통신

전화/팩스 정보시스템 개발판에

삼보정보통신(대표 오근수)은 공중전화망이나 사설교환기망에서 전화기,팩스로 각종 음성정보, 팩스정보 및 데이터정보를 보낼수 있는 전화/팩스정보시스템을 개발, 본격 영업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전화/팩스시스템은 기존 전화망 가입자에게 음성정보를 비롯해 팩스정보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송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전화정보시스템이다.

호스트측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결합, 음성합성 응답장치나 테이프 자동응답장치를 통해 전화나 팩스등 단말기를 가진 가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낼수 있다.

또 미리 저장해놓은 자료를 직접 선택해 원하는 단말기로 받아볼 수 있는 팩스 온 디맨드(Fa On Demand)기능을 지원, 응용범위를 사용자에게 맞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밖에 같은 내용의 팩스문서를 여러곳에 보내는 *팩스 동보 기능 *개개인에게 사서함번호를 부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팩스정보를 수신인의 사서함에 저장한후 다른곳에서 이 정보를 꺼내볼 수 있는 팩스사서함(FRS) 기능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다.

삼테크

제품중심 시장중심으로 조직개편 단행

반도체, 컴퓨터 전문유통업체인 삼테크(대표 이찬경)는 21세기 비전 달성을 위해 기존 제품중심의 조직을 시장중심으로 바꾸는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품목별 조직체제인 4부 1연구소에서 반도체,유통시스템사업부와 기술연구소등 3부 1연구소체제로 개편됐다.

삼테크는 "시장기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전환해 부진한 사업을 통폐합, 영업구조를 재조정하고 기술지원 및 영업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삼테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사업부의 경우 기존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해외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출 영업부를 해외영업부로 확대 개편했다.

유통사업부는 기존 PC, LBP, SW, 직판영업 2부를 직판, 유통, SW영업부등으로 시장 및 기능 중심으로 묶었으며 직영영업팀, 고객만족1팀 등을 별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판 영업1부 및 SI사업부등을 시스템사업부로 이관, 회사내 MIS, POS, 네트워크 등 관련기술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그룹웨어 등 유망신규사업에도 본격 진출키로 했다.

삼테크는 특히 기존 기술연구소 전체를 프로젝트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마케팅실의 직영 영업팀을 유통사업부로 이관하는 등 지원부서인 경영지원실 및 마케팅실의 조직체계도 일부 개편했다.

삼테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7백50억원인 매출실적을 올해 9백억원, 내년에 1천3백억원 규모로 올릴 계획이다.

이번 삼테크의 조직개편은 국내 전자유통산업의 구조자체가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유통구조가 기존 제품위주의 단순한 조직 운영에서 서서히 시장 및 기능 중심의 시스템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이제 대형유통상은 단순 제품판매로는 중소 유통상과의 차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가가치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삼테크는 이번에 시장 및 기능중심에서 유통 제분야를 통합,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

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 데이터 시스템

인력양성위해 "삼성 정보기술아카데미" 개원.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남궁석)이 정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삼성정보기술 아카데미"를 개원, 대대적인 기술구조혁신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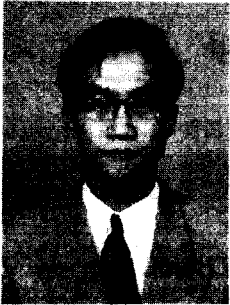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은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삼성정보기술아카데미"를 개원해 오는 97년까지 첨단기술인력 1천2백명을 초일류 종합정보서비스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현재 메인프레임 중심의 기술 구조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구조로 바꾸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술구조혁신 리더과정과 실무자과정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리더과정은 간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실무자 과정은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이다.

교육과목은 UNIX, RDBMS, 네트워크 등 요소기술 중심으로 개발방법론, 클라이언트시스템 개념, 케이스툴 활용등 시스템화 기술과 품질 및 고객만족등으로 구성돼 있다. SDS는 교육수료자에겐 사내 기술자격제도인 NEW AGENT자격을 수여하며, 종합평가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DB**

신규회원가입현황

(주) 아이네트기술



- ◆ 업체명 : (주)아이네트기술
- ◆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허진호
- ◆ 주소 :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21(델타 B/D 201호)
- ◆ 전화 : (02)538-6941
- ◆ 주요사업 :
 - 부가가치통신망의 구성과 운용
 -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의 제공
 - 정보통신 설비 및 단말기기의 판매 및 대여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및 용역의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축적 가공 및 판매
 - 국내외 데이터뱅크와의 연결운용
 -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화연구
 -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 설립년도 : 1994. 8. 30.
- ◆ 자본금 : 2억
- ◆ 종업원수 : 7명